

▣ 농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자율준수관리자에 이종락 상무 선임



농심은 9월 10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심은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적법한 경영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CP를 도입한 농심은 자율준수 관리자로 이종락 상무(기획팀장)를 선임하고 자율준수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전사적 자율준수 네트워크를 확립시켜 나가고 있다.

향후 농심은 CP를 운영하면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약관법 등을 유통영업본부, 마케팅본부, 구매부서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2회 4시간 이상 교육할 예정이며, 추가 교육이 필요할 경우 영업·마케팅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2시간 이상의 공정거래 의식함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 예방적 감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예상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적 감시 활동, 자율준수조직 및 시스템에 의해 신속한 전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CP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과 조직에 대해 CP를 기준으로 제재하게 된다.

▣ 범포스코 ‘공정거래 아카데미’ 개최

포스코·출자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포스코가 최근 공정거래 아카데미를 열고 범(汎)포스코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포스코는 9월 25일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공정거래 아카데미에는 포철산기·포철기연·포스코파워 등 14개 출자사의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해,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범포스코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내실화와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 출자사의 공정거래부문 운영사례가 종합 발표됐으며, 포스코건설과 포스데이타는 자체 점검한 공정거래부문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등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 LG디스플레이,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거래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조건 개선



LG디스플레이는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회사들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약속하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9월 25일 구미 LG 비산복지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LG디스플레이의 30여 개 협력사 대표들과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기업협력 국장, LG디스플레이 CPO(Chief Production Officer, 생산부문최고책임자) 김종식 부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부터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온 것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 대·중소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력업체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 계약 체결 ▶ 선정·운용 ▶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을 모두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 셈이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및 네트워크론 조성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거래 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결제일을 단축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력회사의 6시그마 활동 지원, 협력업체 임직원을 위한 LCD공정 및 품질교육 등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지원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 CPO 김종식 부사장은 "LG디스플레이는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협력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6월 LCD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을 전담하는 상생협력팀을 신설하고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총 70여 건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겼으며,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업체 최초로 부품 및 재료 단가를 인상하는 등 상생경영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 SK 상생 MDP 과정 열려

57개 중소 협력업체 핵심 리더 대상 8주간 '미니 MBA' 식 교육 진행



SK그룹이 최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SK 상생 MDP'를 개원하는 등 상생협력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그룹은 10월 2일 오전 서울 SK남산빌딩 20층의 'SK 상생아카데미' 강의장에서 'SK 상생 MDP' '08년 하반기 과정 개강식을 열었다.

'상생 MDP'는 SK그룹의 대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SK 상생 아카데미'의 3가지 과정 중 중소 협력업체의 팀장급 핵심 리더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과정이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씩 60~7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마케팅, 재무, 인사 등을 다루는 '미니 MBA' 형태로 8주 동안 총 72시간의 교육이 이뤄진다. 이번 과정에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 등 각 계열사의 57개 중소 협력업체에 재직 중인 팀장급 리더 65명이 수강생으로 참여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SK 그룹 상생경영위원장이인 SK케미칼 최창원 부회장과 박영호 SK(주) 사장, 협력업체 수강생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최창원 상생경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애플의 iPod이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의 산물인데서 알 수 있듯이 상생협력은 윤리적,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전략"이라며 "SK 상생 MDP를 통해 상생체계의 경쟁력 제고 기반을 다지고, SK와 협력사가 함께 성장 및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 9월 25일 'SK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통해 현재 1차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K 상생 아카데미'의 교육대상을 2, 3차 우수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생 MDP' 과정에도 2,3차 협력업체의 핵심 리더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SK 그룹은 2006년 10월 최태원 회장의 지시로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그룹 단위의 협력업체 전문 교육장인 '상생 아카데미'를 개원한 이후 '상생 MDP' 이외에 '상생 CEO 세미나', '상생 e-Learning'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 현재까지 '상생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임직원 수는 누적기준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상생교육 이수자 수는 SK그룹 전 임직원 수와 거의 동일한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K그룹 권오용 브랜드관리실장은 "SK 상생 아카데미"는 사람과 교육을 중시하는 SK의 경영철학과 맞닿아 있는 대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라며 "SK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SK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KT, 협력사 대상 '환율변동조정제' 시행

계약 전 가격 산정 시점과 계약 후 협력사의 원자재 수입 시점간의 환율변동분 반영

KT

KT는 환율급변에 의한 원자재 수입비용의 증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고, KT와 협력사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환율변동조정제'를 도입한다고 10월 15일 밝혔다.

향후 예상되는 환율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환율변동조정제는 계약 전 가격을 산정하는 시점과 계약 후 협력사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시점 간의 환율변동분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제도로서, 단기간의 환율급변에 의한 계약금액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KT의 협력사는 환율급변에 따른 재료비 변동 폭을 줄여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환율변동조정제는 2008년 말까지 신규계약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의 계약기간 중인 계약 건에 대해서는 금액조정 요청 시 환율변동분 등을 적극 반영하게 된다.

송원중 KT 구매전략실장은 "환율변동조정제의 시행에 따라 경영능력과 기술능력을 보유한 KT 협력사가 외부 환경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협력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구매제도를 보완하여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롯데백화점, 중소기업사에 '그린경영' 지원

협력사의 ISO 14001 인증 취득 지원, 저탄소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예정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사 1,50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경영 도입 및 정착을 돕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인 그린파트너십을 실시한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환경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경영노하우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햄·케이투코리아·우성INC 등 22개사가 체결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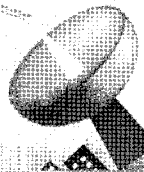
이를 위해 롯데백화점은 협력사가 국제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2월까지 모든 참여 협력사가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물류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롯데백화점은 지식경제부의 후원을 받아 협력사 환경경영 지원을 위한 기금 6억3,000만원을 현재 조성한 상태다.

이밖에 이달 말에는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경영 매뉴얼'을 1,000여 개 협력사에 배포하고, 협력사 직원 1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승인 롯데백화점 마케팅부장은 "그린파트너십을 통해 중소기업이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사 소식



□ 하이닉스,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2008년 지속가능경영대상서 민간부문 대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기업인부문 대통령표창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 국무총리표창에 유한킴벌리 이은욱 부사장 수상



하이닉스반도체가 10월 30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2008년 지속가능경영대상' 민간부문에서 대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속경영보고서 발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대회에서 하이닉스는 올해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수백 년을 지속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지속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환경연합과 공동으로 환경경영 감시단을 조직해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또한 전사 임직원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김종갑 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하이닉스가 꾸준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익적 기반 위에 윤리실천과 친환경경영,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등 더욱 내실 있는 지속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업인부문의 대통령표창에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 사장, 국무총리표창에 유한킴벌리 이은욱 부사장이 각각 선정됐다. 또 기관부문에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외에 서울메트로, 한국수력원자력, 프롬썬어티 등이 수상하게 됐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9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율준수관리자를 한오석 상무(경영지원실장)로 변경·선임했다고 밝혔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http://fairtrade.hynix.com>)을 운영·관리하는 책임자로,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징계주관부서 징계의뢰 등 의무가 있다.

또,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모니터링 수검부서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경쟁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을 갖게 된다.

▣ 기업은행, 현대차그룹과 '1천억원 상생펀드' 조성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실천, 상생협력 자금지원 내용 구체화

기업은행은 현대자동차그룹·기술보증기금과 맺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특별펀드 1천억을 조성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9월 9일 관련 협력중소기업들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의 실천을 위한 것으로 '상생협력 자금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별펀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00억 원을 기업은행에 무이자 예약하고, 기업은행이 여기에 800억 원을 보태 1,000억 원 펀드로 조성됐다.

기업은행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20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대출이 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기업은행은 무이자로 예약하는 200억 원의 평가수익금으로 대출금리를 1.3%p 감면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와 기술평가수수료를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우대조건으로 발급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현대자동차그룹과 기업은행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기업경쟁력은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며 상생협력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약관계자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로운 매칭방식의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해 국가경제에서 비중인 큰 자동차부품산업 영위 중소기업지원·육성 강화와 국가경제의 성장기반 확충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성숙된 상생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출은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기업은행이 '현대자동차 상생협력대출' 상품으로 11월 3일부터 판매된다.

